

“냉철한 자기반성과 소명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 병 루
한국물류협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부회장

최 근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접하는 물류관련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또 그 소식들의 대부분은 외부요인이 아닌 우리들 자신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 것이기에 더욱 아쉽기만 한다.

기존 세계의 공장역할에서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긴 하나,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참여정부가 물류 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청와대에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운용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대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우리의 생존전략인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물류정책이나 경제사정은 웬지 모르게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달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특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은 냉철한 자기분석이어야 할 것임에도 우리의 물류정책에는 그것이 경시되거나 물류의 발전추세마저 다소 간과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더불어 노동의 유연성 부족과 관련 규제에 대한 주한상공인 등에 의한 지적 속에 최근 급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현황과 화물연대에 의한 전국적 운송대란 등 최근 빚어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사정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실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나 확신보다는 오히려 그 실패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나날이 접하는 이웃한 중국의 발전상은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2010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GDP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80% 이상인 400개 기업이 이미 진출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되었다는 외국인 투자규모, 전년대비 37% 이상 증가한 3천 5백만 TEU로서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2002년도 중국항만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상해항이 1,087만 TEU로 부산항의 1,046만 TEU를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해항의 2003년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취급실적, 중국항만을 기종점으로 한 새로운 국제항로의 개설,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1위인 선복보유량 등등이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주요 현상들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부러운 것은 노동의 유연성과 지도자의 청렴성 및 지도력, 전략적 목표의 설정과 그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집중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중국을 바라보며 부러워 할 촌각의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다. 시간의 흐름 따라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닌 까닭이다.

그럼 국가적 위기임이 분명한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일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는 이미 설정돼 있다고 본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의 수립과 그 전략의 이행이다.

이에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그 실천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냉철한 자기분석과 혹독할 정도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함축하여 흔히들 ‘개인주의’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우리는 공리(公利)지향이 아닌 사리(私利)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은 분명한 바, 구성원 각자의 겸허한 반성을 통한 이의 극복이 긴요하게 여겨지는 탓이다.

둘째는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이기도 한 몰아이타(沒我利他)사상에 기반한 겸양과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느 특정 부분의 최적이지 아닌 전체의 최적인 바, 이의 합리적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를 나인 듯 여기며 위하여 달성해야 할 상생인 까닭이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각자의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다. 즉, 스스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또 그에 바탕을 둔 말은 바 업무에 대한 개개인의 소명의식이야말로 현재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요체인 까닭이다.

필자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나은 지정학적 조건과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 등의 장점을 가진 우리의 진정한 저력은 동기부여를 통한 막강한 추진력이라고 믿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과거 “잘 살아보자”란 공동의 목표와 동기부여 및 성취감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란 신조어를 창조한 실증적 경험 또한 가지고 있다.

아시아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중심이 돼 있을 불과 수년 후의 그 어느날 그 아시아의 중심국 국민이 돼 있기 위하여, 오늘 현재의 나는 맡고 있는 일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물류**

